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보험회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천차만별

□ 생명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가산금리가 보험회사별로 통일된 기준없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남.

- 1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박선숙 의원에게 제출한 생명보험회사들의 약관대출 가산금리 자료에 따르면 보험회사별로 예정이율에다 1.5%p~3.75%p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박 의원은 생명보험회사들의 가산금리 구성과 산출방식이 천차만별이라며 금감원이 가산금리 구성내역과 산출방식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.
 - 약관대출은 보험금 및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므로 대출이 아닌 선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보험계약 대출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맞추는 수준의 최소한의 가산금리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임.

□ 금감원도 생명보험회사들의 가산금리 편차가 크다고 보고 비용분석을 통해 가산금리 책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.

- 금감원은 지난 8월 약관대출 금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잡한 금리체계를 단순화하고 종래 단일금리, 가산금리, 구간금리 등 3가지였던 금리 부과방식을 가산금리 방식으로 단일화했음.
- 이달부터 시행된 개선방안은 앞으로 받을 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예정이율에다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, 보험회사 이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합하는 방식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금감원은 이러한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연체이자가 폐지되고 보험회사별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나, 가산금리가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커서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.
- 단, 가산금리 수준은 시장의 경쟁을 통해 정리될 부분으로, 금감원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했으며,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회사별 가산금리 내역 공시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.

(생명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‘제멋대로’ 등, 한겨레 경제 등, 10/20)